



Check-up

하건형 연구위원

☎ (02) 3772-1946

✉ keonhyeong.ha@shinhan.com

문서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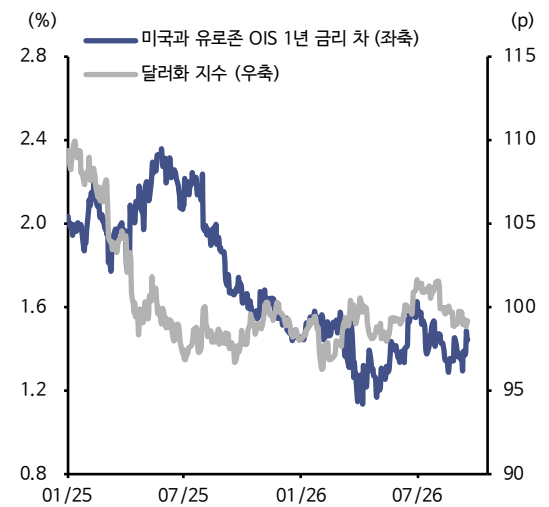
☎ (02) 3772-2640

✉ seoh.moon@shinhan.com

✓ Review: 매파적 연준에 달러 급등

- ◆ 달러화지수 100p선 돌파하며 7주 만의 최고치. FOMC 이전까지 100p선 하회하다 만장일치 25bp 인상 및 점도표 상향 확인 직후 100p 초반 급등. 위시 의장 금융여건 제약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한 점이 강세 자극. 선물금리 시장에서 내년 여름까지 3차례 이상 추가 긴축 반영하면서 금리 경로 자체가 강 달러 지지하는 구도
- ◆ 달러/유로 1.14달러 중반 하락하며 7주래 최저 수준 근접. 엔/달러 156엔대까지 상승하며 2주 만의 최저 수준으로 엔화 가치 후퇴. 월초 150엔 초중반까지 하락해 7개월래 최저치 기록했으나 연준 인상에 따른 달러 매수, 엔 매도가 확대되며 되돌림
- ◆ 원/달러 1,380원대 초반으로 급등. 주 초반에는 반도체 기업 중심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BOJ 인상 기대에 따른 엔화 강세 연동으로 1,340원대 박스권 유지. FOMC 이후 달러 강세와 유가 100달러 상회해 따른 교역조건 악화 우려가 겹치며 상승폭 확대.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위한 환전 수요 악화 역시 원/달러 상승 배경

미국과 유로존 OIS 1년 금리 차, 달러화 지수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 Preview: 선반영 인식에 되돌림 예상되는 원/달러

- ◆ 달러화지수 소폭 되돌림 예상. 시장금리에 긴축 경계 선반영됐다는 인식 대두되는 만큼 지표로 확인되기 전까지 상승분 일부 반납 전망. 관건은 블랙아웃 해제 이후 이어질 연준위원 발언 성격. 물가 기대 관리 위한 선제적 인상인지 아니면 양호한 수요 기반한 추세적 인상인지 구분 필요. 전자로 해석될 경우 추가 인상 폭 기대 제한되며 달러 상단 눌릴 전망
- ◆ 엔/달러는 BOJ 가이드스 해석이 방향 좌우. 금리 인상을 가속 국면으로 규정할 가능성 높는데, 신중론 택할 경우 엔화 약세 재개로 수입물가 상승 압력 확대 소지 있기 때문. 우에다 총재가 기초적 물가 2% 도달 여부와 중립금리 여력을 어떻게 언급할 지가 관전 포인트. 달러/유로는 달러 되돌림에 연동돼 하단 지지 예상
- ◆ 원/달러 환율 단기 급등 이후 상단 제한 구간 예상. 미국 대비 한국 경기 모멘텀 여전히 양호. 9월 1~20일 수출에서도 반도체 중심 견조한 흐름 재확인 전망. 대외 부문 여건에 연동되며 일부 하락 되돌림 나타날 것으로 판단. 다만 유가가 높은 수준 유지할 경우 교역 조건 악화 우려가 하락 속도 늦추는 요인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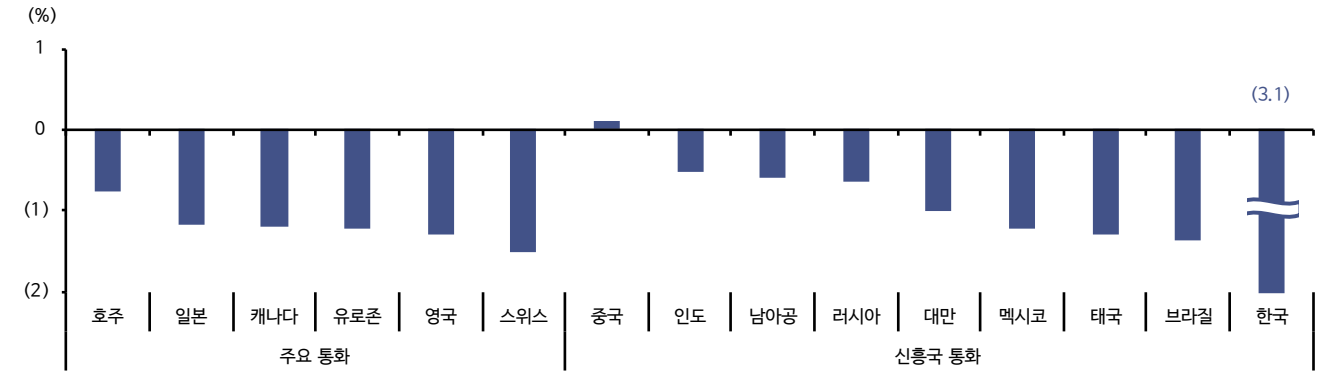
미국과 한국 성장률 전망 차, 원/달러 환율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Chartbook

주요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률 (전주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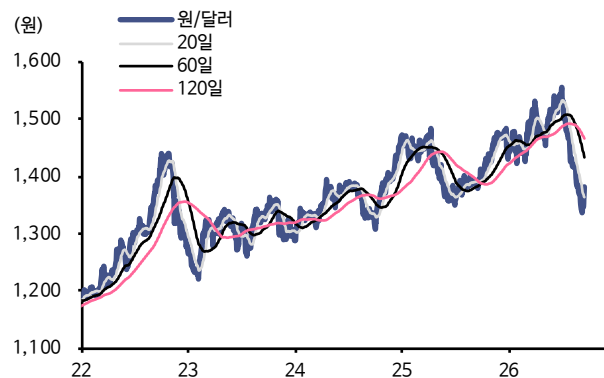


주요 환율 달러대비 절상률

	현재	1W (%)	1M (%)	YTD (%)
통화지수				
달러화지수	100.25	1.2	0.6	2.0
신용통화지수	1,919.1	(1.1)	0.6	3.6
주요 통화				
일본	155.75	(1.2)	2.3	0.6
유로존	1.1486	(1.2)	(0.9)	(2.2)
영국	1.3353	(1.3)	(1.5)	(0.7)
스위스	0.8238	(1.5)	(1.7)	(3.8)
캐나다	1.3987	(1.2)	(0.9)	(2.0)
호주	0.7113	(0.8)	0.0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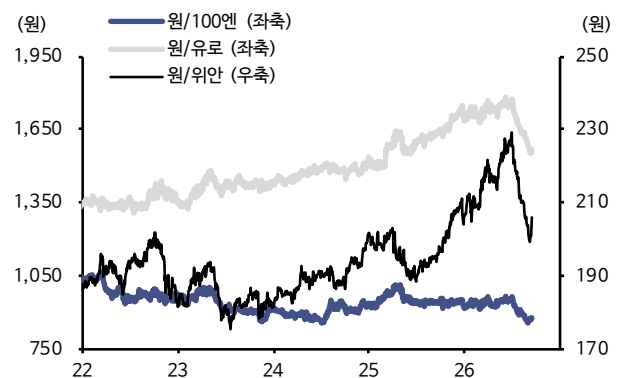
	현재	1W (%)	1M (%)	YTD (%)
신용국 통화				
한국	1,381.7	(3.1)	2.4	4.3
중국	6,7050	0.1	0.5	4.1
인도	95.938	(0.5)	(0.3)	(6.3)
태국	33.370	(1.3)	(1.1)	(5.6)
대만	31.883	(1.0)	(0.1)	(1.4)
러시아	84.500	(0.7)	0.5	(6.4)
남아공	16.268	(0.6)	(0.6)	1.9
브라질	5.1571	(1.4)	0.6	6.3
멕시코	17.185	(1.2)	(0.9)	4.6

원/달러 환율과 이동평균선



자료: Bloomberg, LSEG, 신한투자증권

원/100엔, 원/유로, 원/위안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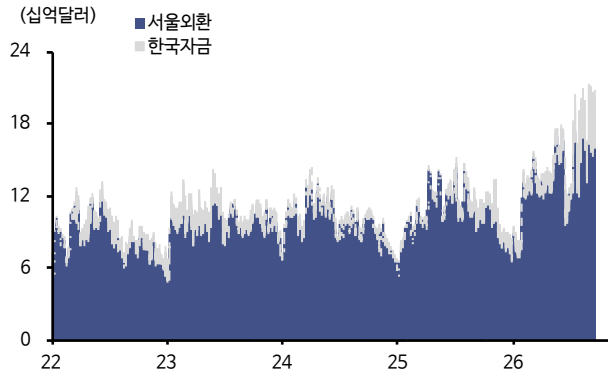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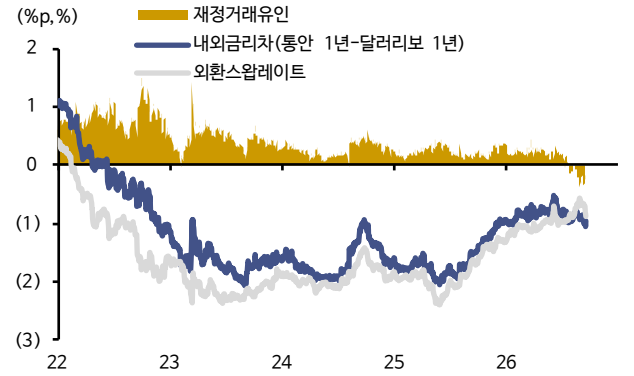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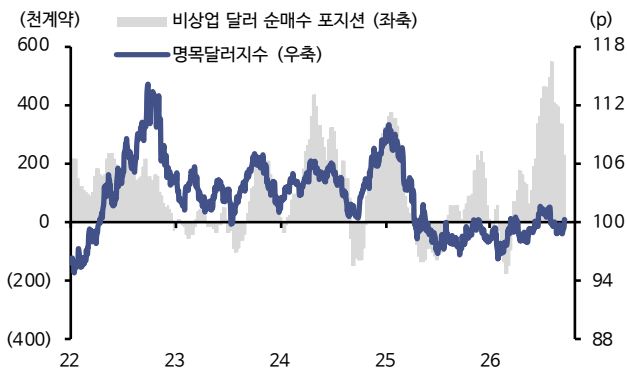
외환시장 거래 (5거래일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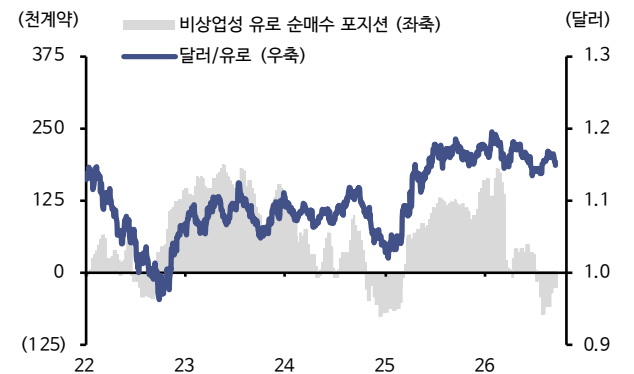
내외금리차(통안채 1년 - 달러리보 1년)와 외환스왑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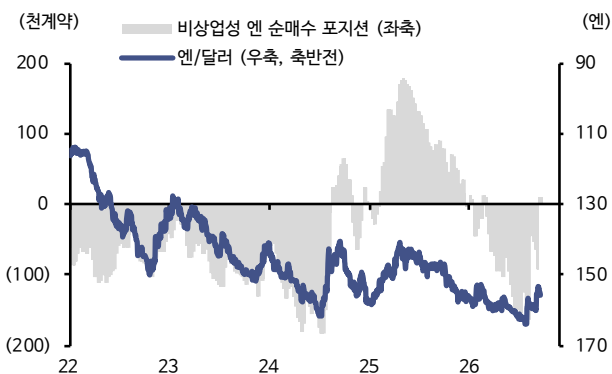
비상업성 달러 순매수 포지션과 달러인덱스(DXY)



비상업성 유로 순매수 포지션과 달러/유로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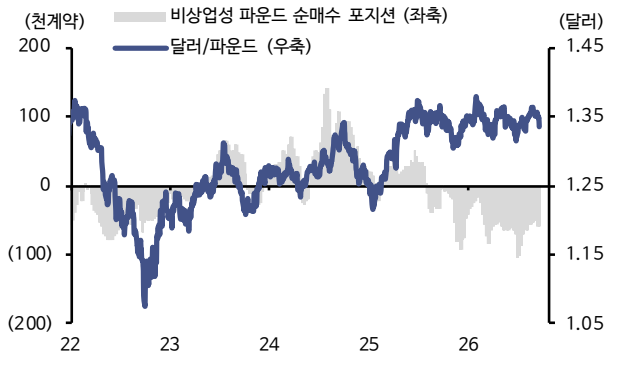


비상업성 엔 순매수 포지션과 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LSEG, Infomax, 신한투자증권

비상업성 파운드 순매수 포지션과 달러/파운드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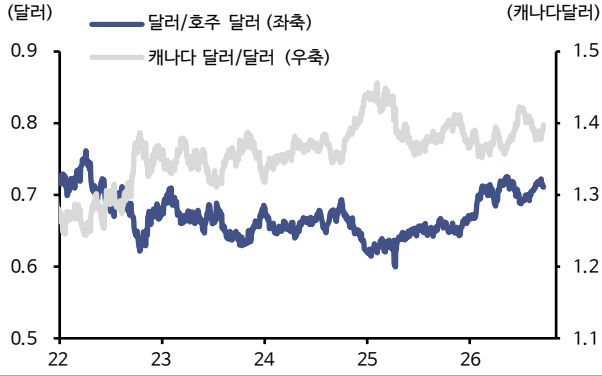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EG, Infomax, 신한투자증권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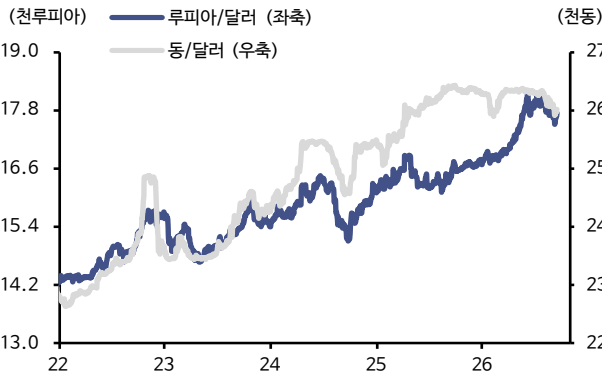
달러/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달러 환율



위안/달러와 루피/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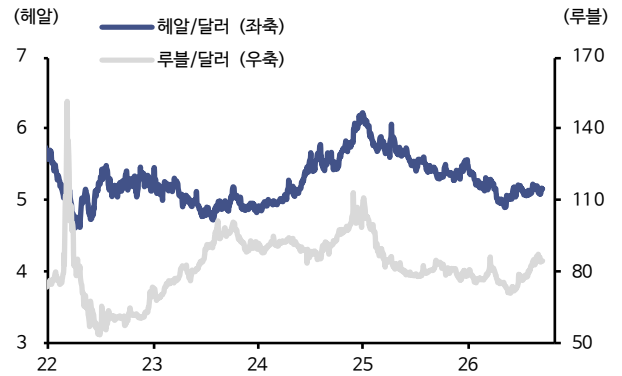


루피아/달러와 동/달러 환율



료: Bloomberg, LSEG, 신한투자증권

헤알/달러와 루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LSEG,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하건형, 문서현).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